



대한민국 제품혁신상 대상

LG전자(주)
LG 디오스 인덕션
6년 연속 수상

LG 디오스·LG 디오스 | Objet Collection

고화력, 안전성, 편리함에 AI까지 모두 갖춘

LG 디오스 인덕션



CHECK POINT

- ✓ 물 끓음 과정을 딥러닝한 온도 예측 알고리즘, 끓음 알림 기능(적용 모델에 한함)
- ✓ 가스레인지보다 조리속도가 최대 2.6배 빠른 화력
- ✓ 독일 특수유리전문업체 쇼트사가 제작한 굽힘에 강한 미라듀어 글라스(적용 모델에 한함)
- ✓ 인덕션 코일 손상을 최소화하는 220°C 내열 코일
- ✓ 최대 21종 안전장치 시스템
- ✓ 용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자동용기감지 기능(적용 모델에 한함)

고화력 성능과 안전성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인덕션

‘LG 디오스 인덕션’은 사전 학습된 빅데이터 기반의 온도 예측 알고리즘으로, 국물요리 시 끓음 정도를 예측해 자동으로 화력을 조절해 주는 ‘끓음 알림’ 기능을 갖추고 있다. 물이 끓게 되면 자동으로 화력을 조절해 주고, 물이 끓기 전후 음성으로 안내해 줘 사용하기 편리하다. 끓음 알림 기능의 자세한 작동 조건은 LG전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력 3,400W의 초고화력 인덕션 화구의 강력한 화력도 장점이다. LG전자는 와이드존 인덕션, 3구 인덕션 등 다양한 초고화력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국제시험인증기관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이 입회한 가운데 LG전자가 실험한 결과, 3,400W 고화력의 LG 디오스 인덕션은 동급의 LG전자 가스레인지(모델명: HB622AB) 3,400W 출력보다 조리속도가 최대 2.6배 빠르다. 일부 모델에 적용된 상판 소재인 미라듀어도 강점이다. 독일 특수유리전문업체 쇼트사의 미라듀어(Miradur®) 글라스는 굽힘에 강하다. 더불어 제품의 자동용기 감지기능의 경우 용기의 위치를 감지하여 화구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고온으로 인한 인덕션 코일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220°C 내열 코일’ ▲상판의 열로부터 코일을 보호하는 ‘고성능 단열재’ ▲전압이 낮거나 높을 경우 제품을 보호하는 ‘고전압·저전압 보호설계’ 등 최대 21가지의 안전장치시스템을 탑재했다. LG전자는 핵심부품과 인버터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디오스 인덕션의 스마트 인버터 IH(Induction Heating) 코일에 대해서 10년간 무상보증하고 있다.

부가 설명

[끓음 알림] * 끓음 알림 기능은 사전 학습된 기능으로, 스스로 학습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용기 뚜껑을 열고 사용해야하며, 우유 데우거나 면류 조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끓음 알림 기능은 다음의 조건에서 최적으로 작동합니다.]** * 자사 기준에 의거 구분한 용기가열지수 8이상의 용기. 예시: 스테인리스430 재질로 용기 크기는 우측 버너 크기에 적합한 바닥 지름 19~22cm를 권장합니다. 자사 상세 용기가열지수에 따른 정보는 자사 웹사이트의 제품소개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권장용기: 테팔 통3중 스테인리스 스틸 양수냄비 20cm). * 해당 기능은 국/찌개/탕 등 점도 없는 국물요리 또는 물에서만 가능하고, 냉장 또는 상온 보관된 상태(약 25°C 이하)의 내용물을 전체 용기 용량의 70% 이하로 초기에 재료를 모두 넣은 후, 제품 조작부의 사용하는 용기에 맞춰 용량 설정은 0.5L/1.0L/1.5L 중 선택해주세요. * 끓음 알림 기능은 우측 버너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이때 용기의 뚜껑을 열고 사용해주세요. 우측 버너의 끓음 알림 기능 사용 시 좌측 버너는 1개까지 동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건에서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볶음/튀김/조림 요리나 내용물이 단백질이나 전분이 요리의 주성분인 경우(우유, 면류 등)나 물이 적거나 조리 중 내용물을 추가 또는 빼는 경우에는 끓음 알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측 버너에 잔열 표시가 켜진 경우나 용기 가열 지수가 7이하인 경우에는 끓음 알림 기능 사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화구 사용 중이거나 과열상태에서 사용불가). * 전체 요리 내용물 중 물이 70% 미만인 경우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초기에 물을 넣지 않고 볶는 미역국 등의 건식 및 복합 조리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냉동 상태에서의 조리물은 사용 불가하고, 냉동보관 레토르트식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시 낮춤 버튼을 누르거나 용기를 이동하는 경우 끓음 알림 기능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2.6배 빠른속도]** * 자사가 제시한 시험 방법으로 자사 전기레인지(우측대화구, 3,400W) / 가스레인지(3,400W) 대상, 물 최초 온도(25°C)로부터 70°C 상승한 95°C 도달까지의 소요시간 측정 *** 실험 조건:** 물 1L, 21cm 냄비(바닥부), 3,400W 최대 점화/터보 기준 * 실험 모델: BEI3MQT(인덕션), HB622AB(가스레인지) * 자사 시험결과를 3차 시험기관인 UL코리아가 검증한 결과(2021.12)로 가스레인지 대비 최대 2.6배 빠른 것으로 확인함. * 실험결과에는 실제 사용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인덕션 3,400W 우측 대화구 터보 기준(단독 동작 시) * 3구 동시 사용 가능하며, 2개 이상 화구 동시 동작 시 제품 최대 출력 범위(3,400W) 내에서 화구별 출력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터보 모드 사용 시 다른 화구 사용 불가함). **[3,400W 초고화력]**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기재된 동급 인덕션 제품의 단일화구 최대 출력 기준(2022.1) (동급 인덕션: 해당 자료 내 1) 국산 제조 2) 인덕션 3구 이상의 화구 구성 플러그인 제품에 한함(단일화구 최대 화력: 각 제조사 홈페이지 및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출력에 근거). **[미라듀어]** * SCHOTT사의 자체 실험 결과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20°C 내열 코일]** * KS C IEC 60085 규격 기준 220°C 내열 소재(=Class R)가 내열 등급 중 최고 등급이며, 3차 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최고 등급의 내열 소재를 사용한 것을 확인함(3차 인증기관: KTL, 인증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 내용: 해당 모델이 내열 최고 등급인 Class R등급 소재의 코일을 사용하였음을 인증함(인증연월: 2021.12). **[21종 안전장치]** * 잠금버튼, 타이머, 전원 자동OFF, 시간제어, 출력제어, 잔열표시 ‘H’, 전원 퓨즈, 용기 감지, 일시 낮춤, 화구 자동 OFF, 코일 감지 센서, 분리벽 코일 설계, 상판 과열 방지, 220°C 내열 코일, 고성능 단열재, 고/저전압 보호설계, 소프트웨어 안전인증(KTL), 변속 쿨링팬, Fan Lock 안전장치, 쿨링 에어가이드 설계, 정전기 방지 시스템 **[안전소프트웨어 설계]** * 부품의 과열 방지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로, KTL로부터 인증 받은 (인증기관명: KTL, 인증연월 : 2024.5, 리포트 번호: 24-014816-01-1, 인증 내용: IEC 60335-1:2010 Annex R 가정용 전기제품 안전규격에 따른 기동 온도 시험 시 기계적인 전원 차단방식에서 소프트웨어 차단방식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안전성 인증 취득) **[10년 무상보증]** * 10년 무상보증은 스마트인버터 IH코일에 한함(2019.5. 판매분 부터) * 가정용 이외 영업 용도, 비정상적 환경 등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 및 부품의 품질 보증 기간을 50% 단축하여 적용함(영업용도, 산업용도, 살균용도, 연구/실험용도, 조리 외 습기 말리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CEO INTERVIEW

조 주 완 LG전자(주) 대표이사 사장

LG 디오스 인덕션이 제품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LG 디오스 인덕션만의 차별화된 기술과 고객 가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주방가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술 혁신 및 선의의 경쟁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LG전자는 고객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량과 일하는 방식을 고객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고객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LG전자를 만드는 것이 본질적 경쟁력이자 장기적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